

시조에 나타난 전고 분류 시론

장 단*

차 례

1. 서론
2. 기존 분류의 의의 및 문제점
3. 새로운 분류법 제시 및 적용 결과
4. 결론

| 국문초록 |

본고는 시조에 나타난 전고를 가장 합리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본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분류를 철저히 검토한 후 그 의의와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의의는 적극 계승하고 문제점은 철저히 극복하는 방향에서 새로운 전고 분류 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새로 제시된 분류의 이론적인 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차적으로 전고를 고사와 전례로 대분류하였다. 2차적으로 고사와 전례를 각각 다시 세분화하여 고사를 신화시대 고사와 역사시대 고사로, 전례를 경전 및 역사서, 시문 및 소설로 중분류하였다. 끝으로 신화시대 고사와 역사시대 고사를 각각 다시 인물과 공간으로 소분류하였다.

한편 이렇게 확립된 분류 안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김천택 편 『청구영언』을 대상 텍스트로 선정하여 분류 안을 적용해 보았다. 그 결과 고사와 전례 중에는 고사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신화시대 고사와 역사시대 고사 중에는 역사시대 고사가 많고, 인물과 공간 중에는 인물이 훨씬 우세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시조에 나타난 전고 분류의 이론적 모색과 실제 적용 과정을 통해 새 분류 안의 효용성을 충분히 확인하였기 때문에 이를 좀 더 넓은 범위로 확대해도 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핵심어 : 고사, 김천택, 분류, 시조, 전고, 전례, 청구영언

1. 서론

전고(典故)는 ‘전례(典例)와 고사(故事)’ 또는 ‘전거로 삼을 만한 옛일’로 정의되고 있다. 전고를 활용한 창작기법은 수사법의 일종으로 한자문화권에서는 오랜 전통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고의 활용은 장르를 불문하고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고에서는 그 중 시조에 나타난 전고에 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일찍이 중국 육조 시대의 문학평론가인 유협(劉勰)은 『문심조룡(文心雕龍)』 「사류(事類)」 편에서 “사류란 것은 대개 문장의 밖에서 일에 근거하여 그 뜻을 유형화하고 옛 것을 가져와 지금을 증명하는 것이다(事類者 蓋文章之外 據事以類義 援古以證今者也.)”¹⁾라고 했다. 여기서의 ‘사류’가 바로 전고를 활용하는 수사법을 말하는 것이다. 전고는 ‘사류’라는 표현 외에 용전(用典), 용사(用事), 원인(援引) 등으로 불리기도 했고²⁾ 전고의 활용 정도에 따라 환골탈태(換骨奪胎), 점철성금(點鐵成金)과 점금성철(點金成鐵), 점화(點化), 습용(襲用)·도습(蹈襲) 등으로도 불리기도 했다.³⁾

이 가운데 특히 낮익은 표현은 용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작자가 시문(詩文)을 지을 때 전고를 끌어다 씌으로써 자신의 논리를 보완하는 방법으로서 고려 후기 이인로(李仁老, 1152~1220), 이규보(李奎報, 1168~1241), 최자(崔滋, 1188~1260) 등에게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또 한자문화권을 벗어나 좀 더 확장하여 나아가면, 서양의 ‘패러디’나 ‘상호텍스트성’이라는 용어와도 견줄 수가 있을 듯하고,⁴⁾ 문학의 범위를 벗어나면 외교적 수사나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단장취의(斷章取義)’라는 표현과도 견줄 수 있을 듯하다.⁵⁾

1) 유협, 최동호 역편, 『문심조룡』, 민음사, 1994, 450쪽; 엄태식, 『한국전기소설연구』, 월인, 2015, 30쪽에서 재인용함.

2) 성기욱, 「《문심조룡》의 전고 운용 고찰」, 『중국학』 제35집, 대한중국학회, 2010, 120쪽.

3) 정끝별, 『패러디 시학』, 문학세계사, 1997, 31쪽.

4) 위의 책; 최기숙, 『17세기 장편소설 연구』, 월인, 1999.

5) 임종욱, 「한문교육에서의 용사전고의 활용 방안 시론 고사성어(故事成語)의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25,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2, 255쪽.

이렇듯 동서양을 막론하고 문학 창작은 물론이고 일상의 생활 속까지 확장되어 사용되었던 전고의 활용은 발화자가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그 타당성을 확보하고 의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데 그 효용이 있을 것이다.

시조 역시 작가의 뜻을 풍부하게 전달하기 위한 방편으로 많은 전고들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듯 꽤 많은 분량의 전고 활용 시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와 관련한 논의가 그만큼 활발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동안 이루어졌던 시조의 전고 활용과 관련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시조에 나타난 다양한 전고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려는 시도이다.⁶⁾ 이러한 논의들은 대개가 전고 유형을 분류하여 각각의 수용 양상을 통해 그 의미를 추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음으로 시조에 집중적으로 출현하는 특정 고사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있다.⁷⁾ 이러한 논의들은 작자와 시대적 배경까지 고려하여 작품 속의 전고가 그것들과 어떤 의미관계를 가지는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중 본고가 관심을 가지고 보려는 분야는 전자의 경우인데, 그 이유는 전자가 후자보다 훨씬 더 논의할 문제가 많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전자의 경우 전체적인 조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대상 자료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우선적인

-
- 6) 김정규, 「중국전고수사가 한국시가문학에 수용된 양상」, 『중어중문학』 8, 한국중어중문학회, 1986; 김태형, 「故事가 사용된 時調의 存在樣相과 意味 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0; 변승규, 「시조에 나타난 신화 소재의 수용 양상과 의미-중국신화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제41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1; 박병수, 「시조의 중국인물소재 연구」, 청주대학교 박사논문, 2012; 조지형, 「典故의 解讀 문제와 고전문학교육의 방향」, 『국어문화』 제60집, 국어문화회, 2015; 劉永濤, 「시조에 나타난 중국인물에 대한 연구」, 가천대학교 석사논문, 2016; 도효려, 「時調에 나타난 中國 神話·傳說 素材 詩語의 이미지 研究」,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2018.
- 7) 김용찬, 「朝鮮後期 時調에 나타난 小說受容의 樣相-〈三國志演義〉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제32권, 민족어문화회, 1993; 이형대, 「楚漢古事 소재 시조의 창작 동인과 시적인식」, 『한국시가연구』 제3집, 한국시가학회, 1998; 김준수, 「時調와 歌辭에 나타난 陶淵明 飲酒詩의 受容樣相」, 『한중인문학연구』 제12집, 한중인문학회, 2004; 강혜정, 「백이 속제 고사의 수용 양상과 그 의미」, 『한민족문화연구』 제34집, 한민족문화학회, 2010; 조홍욱, 「시조의 소설 <삼국지연의> 수용 양상 연구」, 『한국학논총』 제37권,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2; 육민수, 「초한고사를 소재로 한 국문시가 장르의 실현 양상」, 『동양고전연구』 제54집, 동양고전학회, 2014; 조홍욱, 「시조의 초한고사(楚漢故事) 수용 양상」, 『한국시가연구』 제40집, 한국시가학회, 2016; 하윤섭, 「향우에 대한 기억의 변화와 조선 후기의 문학적 재현」, 『고전과 해석』 제22집, 고전문학한문학회, 2017.

로 필요하다. 다음으로 자료의 범위가 정해지면 그것을 어떻게 분류하여 살펴볼 것인가가 문제다. 따라서 이런 연구에서는 대상 자료의 범위를 확정하는 기준과 그것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기 위한 분류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기존 연구에서는 이 기준의 문제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안을 제시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에 사용된 분류들을 꼼꼼히 검토한 후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분류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본고는 모든 시조에 나타난 전고를 가장 합리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그런데 전고가 사용된 시조의 양은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닐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선 김천택의 『청구영언』⁸⁾을 대상 텍스트로 삼아 시조에 나타난 전고 분류의 모범적 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2. 기존 분류의 의의 및 문제점

시조의 전고 활용과 관련한 연구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본고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려는 것은 시조에 나타난 다양한 전고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려는 차원에서 전고의 유형 분류를 시도하고 있는 연구들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7편의 논문⁹⁾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그런데 7편 중 4편은 분류를 시도하고 있기는 하나 그것이 전고 유형 분류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는 점이 있다.

먼저 김태형, 박병수, 유명도의 경우 관심의 초점이 전고 전체라기보다는 전고의 일부인 인물고사와 거의 유사한 범주인 인물소재에 국한하여 분류를 시도하고 있다.¹⁰⁾ 다음으로 도효려의 경우는 신화 전설 소재가 사용된 시조를 추출하여 그것의 유형 분류를 시도한 것이 아니라 그 신화 전설 소재가 빚어내는

8) 김천택 편, 『청구영언』,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구체적인 작품 분석의 경우 '권순희·이상원·신경숙, 『김천택 편 청구영언(주해판)』, 국립한글박물관, 2017.'을 참고하였음.

9) 앞의 주 6을 참조.

10) 김태형, 앞의 논문; 박병수, 앞의 논문; 유명도, 앞의 논문.

다양한 이미지들을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 고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¹¹⁾ 따라서 이들 4편은 시조에 사용된 전고의 유형 분류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일단 논외로 하고 나면 남는 것은 3편이다. 이에 해당 논문 3편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그 의의와 문제점을 알아보고 새로운 분류와 관련하여 수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부분, 즉 밑바탕으로 삼을 만한 결정적인 힌트는 적극적으로 참고하고자 한다.

먼저 시조에 나타난 전고 활용과 관련하여 가장 단순한 분류기준을 제시한 논의부터 살펴보기로 하겠다. 김정규는 중국의 전고수사가 한국의 시가문학, 특히 시조에 어떻게 수용되어 나타났는가를 살피고자 하였다.¹²⁾ 논지의 전개는 시조만 단독으로 살피는 것이 아니라 전고수사와 관련하여 체계적 연구가 이미 상당히 진척된 한시와의 비교를 통해서 하고 있다.

그는 시조에 나타난 전고수사의 수용 양상을 살피기 위하여 전고수사의 특징¹³⁾과 개념¹⁴⁾, 그리고 분류 기준¹⁵⁾을 우선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전고수사의 특징을 ‘비유’라고 보았고, 개념은 ‘수사법상의 한 종류로 문학 창작에 있어서 외부에서 사실을 끌어와 그 개념을 유형화하고 옛 것을 빌려서 현실을 설명하는 기법’¹⁶⁾이라고 하였다. 또 분류 기준으로 ‘성사(成辭)와 인사(人事)’를 제시하고, “성사는 언어형식을 빌려 기록되고 정제된 고인의 언행을 원용함을 뜻하는 것이고 인사는 명확한 근거를 갖는 어떤 역사적 사실을 원용함을 뜻하는 것이다.”¹⁷⁾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는 모두 유협(劉錫)의 『문심조룡(文心雕龍)』 「사류(事類)」 편의 내용에 근거를 둔 것이다. 물론 이것은

11) 도효려, 앞의 논문.

12) 김정규, 앞의 논문.

13) “비록 옛 일을 인용하되 옛 말을 그대로 하지는 않는다[雖引古事而莫取舊辭.]” 유협, 『문심조룡(文心雕龍)』 권8, 「사류」 제38.

14) “사류란 것은 대개 문장의 밖에서 일에 근거하여 그 뜻을 유형화하고 옛 것을 가져와 지금을 증명하는 것이다[事類者, 蓋文章之外, 據事以類義, 援古以證今者也.]” 위의 책.

15) “기존의 말을 인용하여 도리를 밝히고, 타인의 일에 의거하여 의의를 증명한다[明理引乎成辭, 徵義舉乎人事.]” 위의 책.

16) 김정규, 앞의 논문, 61쪽.

17) 위의 논문, 63쪽.

한시비평에서의 전고수사 개념과 분류를 시조에 그대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새롭게 분류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와 같은 분류 기준에 기대어 시조에 나타난 전고 수용 양상을 분석한 결과, 우리말 표현으로 변용된 전고 수사가 한시와는 다른 미학적 형태를 보여주었다는 긍정적 견해와 시조가 한시와 달리 전문적인 작가집단이 없었다는 점과 본격 문학이 아닌 시여로만 인식되었다는 점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시에 비해 표절에 가까운 전고 인용이 많았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함께 도출되었다.

이 논문은 시조에 나타난 전고 수용과 관련한 연구가 거의 전무했던 시기에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모든 시기의 시조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작자가 밝혀진 16세기 이전 시조에 국한하여 논지를 펼쳤기 때문에 분석 결과가 전체 시조에 나타난 전고 수용 양상을 대변했다고 보기는 힘들 듯하다.

본고의 관심사인 분류라는 측면에서 이 논문을 살펴보면, 『문심조룡(文心雕龍)』이라는 고전(古典)에 근거하여 ‘인사와 성사라는 분류 기준을 제시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전고(典故)는 전례와 고사의 합성어라 할 수 있는데 인사는 고사와, 성사는 전례와 대응된다는 점에서 이 분류는 결국 고사와 전례로 분류한 것이 된다. 따라서 이 분류법은 전고를 분류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분류로서 웬만한 전고들은 대부분 분류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 양분법은 분류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분류법은 개별 전고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그다지 보탬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것보다는 좀 더 세분된 분류가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지나치게 큰 분류이기 때문에 좀 더 세분된 분류를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정밀하게 전고를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갈 수 있을 듯하다.

다음으로 시조에 나타난 전고 중 신화 소재에 국한하여 유형 분류를 시도한 논의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변승구는 박을수의 『한국시조대사전』(아세아문화사, 1991)과 『별쇄보유(別刷補遺)』(아세아문화사, 2007)에 수록된 시조를 대상으로 하여 시조에 나타난 신화 소재를 추출한 후 이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그것

들이 시조에 어떻게 수용되는지 그 양상과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¹⁸⁾

우선 그는 작품 분석 결과로 시조에 나타난 신화 소재 작품이 266수임을 파악하고 여기에 나타난 신화적 요소를 인물, 공간, 신물의 3가지로 유형화하였다. 그리고 인물, 공간, 신물을 각각 다시 천상과 지상으로 세분화하였다. 이런 분류를 시도한 이유는 각각의 빈도수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그 결과 3가지 유형의 빈도수는 인물, 공간, 신물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인물 내에서는 순, 요, 신농씨, 옥황상제 순이고 공간 내에서는 삼신산, 봉래산, 요지 순이며 신물 내에서는 불로초, 불사약, 오현금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시조에 나타난 신화 소재 수용 양상은 다음 3가지로 정리하였는데, ① 신화시대의 통치에 대한 희구는 성군과 태평성대, 그리고 왕도 정치의 희구를 담고 있다고 했고, ② 신화적 삶의 동경은 충·효와 은자적 삶, 그리고 장수에 대한 동경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으며, ③ 신화를 통한 경계는 과거 통치를 통한 경계와 변화하는 세태에 대한 경계라고 했다.

끝으로 시조에 수용된 신화 소재의 역할과 의미를 다음 3가지로 정리하였는데, ① 신화 소재를 통한 이상향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 ② 신화를 통해 시조의 소재 수용의 외연을 확대시켰다는 점, ③ 신화 소재를 통해 작가의 주제인식을 강화시켰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 논문은 시조에 나타난 신화 소재에 대한 최초의 논의라는 점과 시조에 나타난 신화 소재를 비교적 정밀하고 세밀하게 분류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문제는 연구자가 연구 주제인 신화를 부각시키기 위해 고사와의 차별성을 유난히 강조했다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과연 신화와 고사는 분리될 수 있는 것인가? 그럴 수 없다고 본다. 가령 이 논문에 정리된 대부분의 신화 소재들만 보아도 당장 고사의 일부로 포함시켜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 논문은 고사 가운데 역사 고사를 배제하고 신화 고사만 대상으로 삼아 유형 분류를 시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앞에서 살핀 김정규의 논의에서는 ‘전례(典例)와 고사(故事)’라는 분류에

18) 변승구, 앞의 논문.

서 고사와 대응되는 ‘인사’의 범위를 ‘역사적 사실만을 원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신화 소재가 배제된 아쉬움이 있었다. 그런데 마침 이 논문이 앞에서 배제되었던 신화 소재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기에 일정 부분 수용을 통한 보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신화와 전고를 분리해서 보기보다는 전고의 범주 속으로 신화 소재를 끌어들이어서 전고를 신화시대 전고와 역사시대 전고로 나누어 볼 수 있을 듯하다.

마지막으로 시조를 포함한 전체 고전문학 작품에 나타난 전고 활용과 관련하여 유형 분류를 시도한 논의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조지형은 고전문학 작품의 교육 문제와 관련하여 전고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즉 그가 전고의 유형을 분류하는 것은 유형별 맞춤 교육을 모색하기 위함이다.¹⁹⁾

그는 전고는 선행 텍스트의 어구를 활용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미지를 선명하게 하는 전통 수사법의 일종으로서, 고전문학 작품은 필연적으로 전고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작품의 참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높은 지적 교양의 토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 고전문학 작품을 읽고 가르치는 교육현장에서는 교수·학습 과정이 지나치게 혼고 풀이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서 교수자나 학습자 모두 전고의 해독과 관련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전고에 대한 안목과 통찰력을 배양하여 학습자의 수준과 위계에 맞게 교수·학습에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또 전고를 파악하고 이해하여 작품의 해석과 감상에 활용하는 이러한 행위는 ① 품위 있는 언어 능력의 신장, ② 언어문화 정체성의 확립, ③ 작품향유와 창작의 심미적 역량 고양이라는,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가치와 가능성까지 지니고 있다고 했다. 이어서 개별 작품에 사용된 전고의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에 따라 교수·학습의 주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정리하였다.

조지형은 개별 작품에 사용된 전고의 유형을 ① 물명 중심, ② 인물 중심, ③ 전거 중심, 그리고 ④ 주제 중심의 넷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작품의 해독 문제와 관련하여 ① 물명 중심의 경우 가전(假傳)이나 우언(寓言)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

19) 조지형, 앞의 논문.

식으로 개별 어휘가 지니고 있는 상징성을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했으며, ② 인물 중심의 경우 작자가 작품 속에서 인물 전고를 활용하여 자신의 사상이나 세계관 등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수자는 역사적 인물과 작자가 만나게 되는 접점이 무엇인지, 이를 통해 작자가 말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 ③ 전거 중심의 경우 경사류(經史類) 문헌에서 근거한 표현을 차용하는 경우로서, 작품의 맥락을 고려하여 해당 전고가 지닌 의미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잘 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 ④ 주제 중심의 경우 작품 층위에서 활용된 경우로서, 이 유형의 전고는 작품의 구조 및 주제화에 초점을 두고 교수·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 논문은 전고가 포함되어 있는 고전문학 작품을 어떻게 읽어내고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전고의 해독과 관련하여 유형 분류를 시도하고 각 유형마다 교수·학습의 주안점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잘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여기서 시도한 4가지 유형 분류는 장르를 불문하고 고전문학 작품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이 분류는 겉으로 보면 4가지 유형으로 나눈 것 같지만 사실은 앞서 김정규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눈 것과 별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물명 중심과 인물 중심은 고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김정규의 인사와 동일하고, 전거 중심과 주제 중심은 전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김정규의 성사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지형의 분류는 결국 김정규의 양분법을 가져와서 다시 세분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고사의 경우는 물건(물명)이나 인물이나로 나눈 것인데 비해 전례의 경우는 전거를 그대로 가져왔느냐 아니면 포괄적인 주제의 차원에서 가져왔느냐로 나눔으로써 세분의 기준만 달리했을 뿐이다.

3. 새로운 분류법 제시 및 처리 결과

이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연구사 검토를 토대로 시조에 나타난 전고의 새로

은 분류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대분류 체계부터 논하기로 한다. 앞서 시조에 나타난 전고 분류와 관련하여 가장 단순한 분류 기준을 제시한 것은 김정규의 분류법이다.²⁰⁾ 그가 원용한 것은 유희의 『문심조룡(文心雕龍)』 「사류(事類)」 편의 내용에 근거한 ‘인사(人事)와 성사(成辭)’라는 분류 방법이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곧 ‘고사(故事)와 전례(典例)’로 분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고라는 말이 전례와 고사의 합성어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런 측면에서도 전고는 크게 전례와 고사라는 양분법으로 나누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보겠다. 이렇게 나눌 경우 고사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유서 깊은 이야기를 가리키며 전례는 말이나 문장의 근거가 되는 문헌상의 선례를 가리킨다.

다음으로 중분류 체계에 대해 논해보기로 하자. 중분류는 1차적으로 전고로 고사와 전례로 대분류한 것을 바탕으로 다시 고사와 전례를 어떻게 더 세분화할 것인가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고사와 전례를 더 세분화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기존 논의에서 어느 정도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고사를 하위분류 하는 데 있어서는 김정규와 변승구의 논의가 참고된다.²¹⁾ 김정규는 고사에 대응되는 인사의 범위를 논하면서 역사적 사실만 원용한다고 했다. 반면 변승구는 신화 소재를 대상으로 연구하면서 이를 고사와 차별화된 것으로 강조하였다. 이 둘의 관점을 종합하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만이 고사이므로 신화는 고사의 범주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된다. 그러면 과연 고사를 역사적 사실로 국한해야 할까? 김정규가 고사를 역사적 사실로 한정된 것은 ‘인사’라는 말 자체에 얽매인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인사’라는 용어에 얽매어 ‘인간의 일’로 이해하는 순간 인사, 즉 고사는 역사적 사실로 국한된다. 그러나 우리가 고사를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는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것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요순시대와 관련된 고사라 할 수 있다. 하(夏)나라 이후를 역사시대로 간주하는 관점에서 보면 요순시대는 역사이전의 시대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 시대

20) 김정규, 앞의 논문.

21) 김정규, 앞의 논문; 변승구, 앞의 논문.

의 일을 신화로만 이해할 수도 없다. 상당 부분의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과 큰 차이 없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고사와 신화를 구분하는 것보다는 신화를 고사의 영역으로 끌어들이어 신화시대 고사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고사는 신화시대 고사와 역사시대 고사로 나눌 수 있을 듯하다.

전례에 대한 세분의 기준을 논의하는 데 참고할 만한 유일한 선행연구는 조지형의 연구이다.²²⁾ 그는 전거를 그대로 가져왔느냐 아니면 포괄적인 주제의 차원에서 가져왔느냐에 근거하여 전례를 나누었다. 그러나 이 세분의 기준은 전체 고전작품을 나누는 도구로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시조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시조의 경우 포괄적인 주제중심으로 가져온 전례 사용은 거의 없고 대부분 전거를 그대로 가져온 전거중심 위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초점을 시조에만 두었을 때 전례의 세분 기준은 다시 새롭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전례는 이미 문헌에서 명백히 사용된 것을 거의 그대로 가져와 사용하는 형태라고 정의를 내렸으므로 전례를 다시 세분화할 경우 문헌의 종류별로 나누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본다. 중국 고대 문헌의 전통적인 분류방식으로 가장 보편적인 것은 경(經), 사(史), 자(子), 집(集)의 넷으로 나누는 것이다. 경(經)은 경서(經書), 사(史)는 역사서(歷史書), 자(子)는 제자백가(諸子百家), 집(集)은 시문집(詩文集)이다. 그러므로 시조에 관련된 전례도 마땅히 이런 방식으로 나누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런데 시조의 경우 고사와 달리 전례 사용은 많지 않기 때문에 지나치게 세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다. 그럴 경우 경·사·자를 한데 묶어 경전 및 역사서로 분류하고, 집은 시문 및 소설로 표현하여 경전 및 역사서와 짝을 맞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

끝으로 소분류 체계에 대해 논해보기로 하자. 소분류는 고사를 신화시대 고사와 역사시대 고사로, 전례를 경전 및 역사서와 시문 및 소설로 중분류한 것을 바탕으로 각각 다시 신화시대 고사와 역사시대 고사, 경전 및 역사서와 시

22) 조지형, 앞의 논문.

문 및 소설을 어떻게 더 세분할 것인가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들을 더 세분화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기존 논의에서 어느 정도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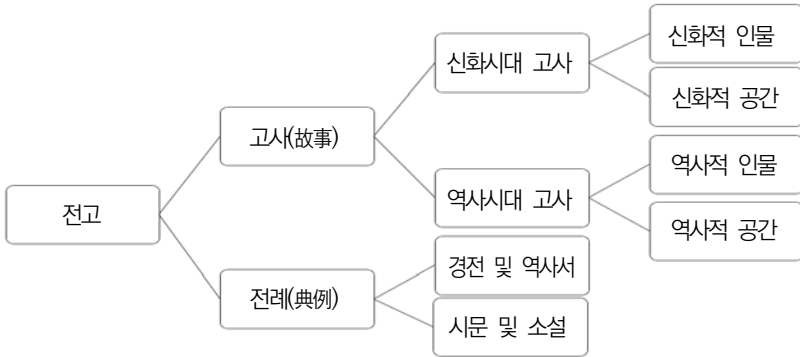
신화시대 고사를 유형화하는 것과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것은 변승구의 연구이다.²³⁾ 그는 신화 소재를 인물, 공간, 신물로 유형화하였다. 그런데 앞서 지적했듯이 대부분의 작품에서 공간과 신물은 긴밀한 관련성을 가지고 함께 출현한다. 그러므로 이를 별도로 분류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예를 들면 신화시대 고사에서 공간과 신물인 ‘남훈잔’과 ‘오현금’, ‘삼신산’과 ‘불로초’ 등은 모두 대응하여 출현하기 때문에 별도로 분류할 경우 그저 중복된 작품의 수만 늘어날 뿐 새로운 분류법의 제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역사시대 고사도 유형화하는 데 공간과 사물(事物)이 긴밀한 관련성으로 대응되어 출현하기 때문에 역시 별도로 분류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신화시대 고사와 역사시대 고사를 각각 다시 인물과 공간으로 유형화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본다.

한편 경전 및 역사서와 시문 및 소설은 이론상 경전, 역사서, 시문, 소설로 다시 소분류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시조에 사용된 전례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따라서 이 경우는 소분류 체계 없이 중분류 체계로 그치기로 한다.

이상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시조에 나타난 전고의 새로운 분류법을 제시하였다. 1차적으로 전고를 고사와 전례로 대분류하였다. 2차적으로 고사와 전례를 각각 다시 세분화하여 고사를 신화시대 고사와 역사시대 고사로, 전례를 경전 및 역사서, 시문 및 소설로 중분류하였다. 끝으로 신화시대 고사와 역사시대 고사는 각각 다시 인물과 공간으로 소분류하였다. 이를 이해하기 쉽도록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3) 변승구, 앞의 논문.

<표 1> 시조 전고의 분류 체계



<표 1>에서 맨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들을 열거하면 신화적 인물, 신화적 공간, 역사적 인물, 역사적 공간, 경전 및 역사서, 시문 및 소설의 여섯 가지다. 따라서 전고는 이 여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셈이다.

이제 이 여섯 가지 분류 모형을 실제에 적용한 경우 어떤 효용성과 문제점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천택의 『청구영언』²⁴⁾을 대상으로 이를 적용해 보았다. 그 결과 전체 580수 중 전고가 사용된 작품은 177수(중복 불포함)로 나타났으며 177수의 구체적인 분포는 다음 표와 같았다.

<표 2> 김천택 편 『청구영언』에 나타난 전고 분류 현황

전고의 유형	작품번호	작품수
신화적 인물	93·115·124·126·180·185·205·214·231·250·255·272·275·311·313·377·386·393·396·449·451·452·485·492·500·504·510·521·539·544·560	31
신화적 공간	93·124·126·131·(138)·(262)·(385)·386·414·452·492·510·557	13
역사적 인물	2·3·15·60·80·96·97·100·119·120·125·128·137·143·146·167·170·175·180·181·182·183·188·196·214·228·229·230·236·250·260·266·274·277·278·279·280·281·282·283·284·285·425·335·382·387·	78

24) 권순화·이상원·신경숙, 앞의 책.

전고의 유형	작품번호	작품수
	388·389·392·423·424·426·431·437·438·447·456·469·470·471·474·482·487·488·492·497·499·499·500·523·528·540·546·554·556·557·558·561	
역사적 공간	2·15·80·(169)·180·181·182·183·(211)·214·(218)·226·228·229·254·260·(265)·274·277·279·282·284·285·388·389·387·396·(419)·423·431·437·447·456·469·488·497·499·523·557·561·570·(577)	42
경전 및 역사서	37·90·413·482·570·127·283·446·41·428·32·193·263·277·278·60·560·320·377	19
시문 및 소설	20·32·146·155·254·266·272·379·413·414·452·453·461·463·464·468·489·510·554·570	20
기타	45·145·184·221·226·251·376·410	8
합계	-	211 (중복 포함)

위의 <표 2>를 살펴보면 고사와 전례 중에는 고사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신화시대 고사와 역사시대 고사 중에는 역사시대 고사가 많고, 인물과 공간 중에는 인물이 훨씬 우세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할 경우 유의미한 양상을 포착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이런 점에서 이 분류체계는 충분한 효용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 몇 가지 고민하고 판단해야 할 문제가 대두되었다. 지금부터는 이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예를 들어가며 설명하고자 한다.

새로운 분류체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로 떠오른 것은 중복 출현하는 작품의 처리 문제였다. 작품에 하나의 전고만 사용된 경우 그 전고가 위의 여섯 가지 중 어디에 속하는지 정확히 판단만 하면 된다. 그런데 2개 이상의 전고가 사용된 경우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나타났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원칙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우선 2개 이상의 전고가 각각 나름의 의미 맥락을 형성하여 그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각의 유형에 복수로 포함시켜 계산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

만 살펴보기로 한다.

180.

山아 首陽山아 伯夷 叔齊 어딤 가니
萬古 清節을 두고 간 줄 뉘 아드니
어즈버 堯天 舜日이야 親히 본가 ㅎ노라²⁵⁾

위의 작품에는 백이, 숙제, 요, 순 등의 인물과 수양산이라는 공간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또한 수양산에서 고사리를 캐어 먹으며 살았다는 백이 숙제 고사는 역사시대 고사이며, 요천 순일은 요순시대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신화시대 고사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들 고사는 제 각각 나름의 의미를 형성하고 있어서 어느 한쪽을 빼고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작품은 신화적 인물, 역사적 인물, 역사적 공간에 모두 포함시켰다.

557.

色긔치 도흔 거슬 기 뉘라셔 말리논고
穆王은 천자 | 로되 瑤臺에 安樂하고 項羽는 天下壯士 | 로되 滿營秋月에 悲歌慷慨
明皇은 英主 | 로되 解語花 離別에 馬嵬驛에 우렛느니
ㅎ물며 날 갓튼 小丈夫로 몇 百年 살리라 희을 일 아니ㅎ고 속절업시 늘그라²⁶⁾

위의 작품에는 여러 인물과 공간이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인물의 경우에는 다 역사시대 인물이므로 역사적 인물로 분류가 가능하다. 다만 공간의 경우에는 항우의 병영(兵營)과 당(唐) 명황이 양귀비와 이별한 마외역은 역사적 공간이지만, 요대는 신선 서왕모(西王母)가 산다는 곤륜산 꼭대기에 있는 신화적 공간이다. 따라서 이 작품의 경우 역사적 인물, 역사적 공간, 신화적 공간으로 중복 분류하였다.

25) 앞의 책, 117쪽.

26) 위의 책, 324쪽.

다음으로 작품에 명시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더라도 문맥상으로 유추가 가능한 경우에는 유추하여 분류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기로 한다.

2.

이바 楚人사름들아 네 님금이 어디 가니
 六里 靑山이 뉘 싸히 되닷 말고
 우리도 武關 다든 後 | 니 消息. 몰라 흐노라²⁷⁾

위의 작품에는 명시적으로 인물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공간과 문맥을 통해 신분을 확정할 수 있다. 초(楚)사람의 임금이라 할 때 일단 초나라면 역사적 인물인 것을 확정할 수 있다. 나아가 역사적 공간인 육리청산과 무관이 나타나 있을 때 등장인물의 신분은 더 명확해졌다. 그것은 이 두 공간은 모두 역사적 인물인 초희왕(楚懷王)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육리청산은 장의(張儀)가 초희왕에게 유세(遊說)를 하면서 땅 육백리를 바치겠다고 약속했다가 나중에 육리로 반복하여 희왕을 속인 고사이다. 무관은 진의 소왕(昭王)이 초희왕을 유인하여 가두었던 곳이다.

451.

治天下 五十年에 不知왜라 天下事를
 億兆 蒼生 엇고자 願이러나
 康衢에 童謠를 드르니 太平인가 흐노라²⁸⁾

위의 작품에는 명시적으로 거론된 인물은 없다. 그러나 치천하 오십년은 신화적 인물인 요임금이 나라를 다스린 지 50년이 되던 해를 가리킨다. 강구에 동요는 요임금이 변화한 거리로 순찰하러 갔다가 강구동요를 듣는 이야기를 가리킨다.

27) 앞의 책, 14쪽.

28) 위의 책, 257쪽.

따라서 이 작품은 신화적 인물 중 요임금의 고사가 사용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검토할 것은 특이하고 예외적인 경우이다. 이런 경우의 작품은 앞서 이론으로 제기한 분류체계 중 그 어디에도 분류할 수 없는 특이한 사례이지만 전고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본 분류체계 이외인 기타로 처리하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작품이 이에 해당된다.

45.

네 아들 孝經 넓드니 어드록 비환느니
 내 아들 小學은 모르면 므출로다
 어너 제 이 두 글 비화 어질거든 보려뇨²⁹⁾

위의 작품에는 ‘효경’과 ‘소학’이란 문헌명이 언급되었으므로 응당 경전 및 역사서에 포함시켜야 할 듯하다. 그러나 단순히 문헌명만 언급되었을 뿐 특정 구절을 구체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전 및 역사서로 분류된 여타의 경우와 구별되는 측면이 있다. 이처럼 전고가 사용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사용이 구체성을 갖지 못하고 모호한 경우에는 기타로 처리하였다.

4. 결론

본고에서는 시조에 나타난 전고를 가장 합리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그런데 전고가 사용된 시조의 양은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본고에서는 우선 김천택 편 『청구영언』을 대상 텍스트로 삼아 시조에 나타난 전고 분류의 모범적 안을 찾아보기로 하였다.

우선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시조에 나타난 전고의 새로운 분류법을 제시하였다. 1차적으로 전고를 고사와 전례로 대분류하였다. 2차적으로 고사와 전례를

29) 앞의 책, 41쪽.

각각 다시 세분화하여 고사를 신화시대 고사와 역사시대 고사로, 전례를 경전 및 역사서와 시문 및 소설로 중분류하였다. 끝으로 신화시대 고사와 역사시대 고사는 각각 다시 인물과 공간으로 소분류하였다.

다음은 이론적으로 완성한 새 분류법을 김천택의 『청구영언』에 적용해 보았다. 그 결과 고사와 전례 중에는 고사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신화시대 고사와 역사시대 고사 중에는 역사시대 고사가 많고, 인물과 공간 중에는 인물이 훨씬 우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할 경우 유의미한 양상을 포착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이런 점에서 이 분류체계는 충분한 효용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 몇 가지 고민하고 판단해야 할 문제가 대두되었다.

새로운 분류체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로 떠오른 것은 중복 출현하는 작품의 처리 문제였다. 작품에 하나의 전고만 사용된 경우 그 전고가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 정확히 판단만 하면 된다. 그런데 2개 이상의 전고가 사용된 경우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나타났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전고가 각각 나름의 의미 맥락을 형성하여 그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고 보아 각각의 유형에 복수로 포함시켜 계산하였다.

다음으로 작품에 명시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더라도 문맥상으로 유추가 가능한 경우에는 유추하여 분류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끝으로 전고가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앞서 이론으로 제기한 분류체계 중 그 어디에도 분류할 수 없는 사례인 경우에는 기존 분류체계 이외인 기타로 처리하였다.

본 연구는 시조에 나타난 전고를 가장 합리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일차적 의미를 두었기 때문에 이를 모든 시조에 적용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김천택 편 『청구영언』을 대상 텍스트로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효율성이 어느 정도 확인되었기 때문에 향후 이를 시조 전체로 확대해서 적용해도 무방하겠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전체 시조에 나타난 전고 활용 양상을 검토하고 거기에 나타난 유의미한 특성들을 분석하는 데로 후속 연구를 확장할 예정이다.

참고문헌

1. 저서

- 권순희·이상원·신경숙, 『김천택편 청구영언(주해판)』, 국립한글박물관, 2017.
 김천택 편, 『청구영언』,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엄태식, 『한국전기소설연구』, 월인, 2015.
 유협, 『문심조룡(文心雕龍)』 권8, 「사류(事類)」 제38, 전자도서.
https://www.gushiwen.org/GuShiWen_ac80c70690.aspx.
 유협, 최동호 역편, 『문심조룡』, 민음사, 1994.
 정끝별, 『패러디 시학』, 문학세계사, 1997.
 최기숙, 『17세기 장편소설 연구』, 월인, 1999.

2. 논문

- 강혜정, 「백이 숙제 고사의 수용 양상과 그 의미」, 『한민족문화연구』 34집, 한민족문화학회, 2010, 3~30쪽.
 (UCI: G704-001650.2010..34.002)
 김용찬, 「朝鮮後期 時調에 나타난 小說受容의 樣相 - <三國志演義>를 중심으로 -」, 『어문논집』 제32권, 민족어문학회, 1993, 285~316쪽.
 김정규, 「중국전고수사가 한국시가문학에 수용된 양상」, 『중어중문학』 8, 한국중어중문학회, 1986, 61~83쪽.
 김준수, 「時調와 歌辭에 나타난 陶淵明 飲酒詩의 受容樣相」, 『한중인문학연구』 제12집, 한중인문학회, 2004, 212~237쪽.
 (UCI: G704-000248.2004..12.004)
 김태형, 「故事가 사용된 時調의 存在樣相과 意味 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0.
 도효려, 「時調에 나타난 中國 神話·傳說 素材 詩語의 이미지 研究」,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2018.
 劉永濤, 「시조에 나타난 중국인물에 대한 연구」, 가천대학교 석사논문, 2016, 1~58쪽.
 박병수, 「시조의 중국인물소재 연구」, 청주대학교 박사논문, 2012.
 변승규, 「시조에 나타난 신화 소재의 수용 양상과 의미-중국신화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제41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1, 5~42쪽.

(UCI: G704-001857.2011..41.002)

성기옥, 「《문심조룡》의 전고 운용 고찰」, 『중국학』 제35집, 대한중국학회, 2010, 119~138쪽.

(UCI: G704-001822.2010..35.010)

육민수, 「초한고사를 소재로 한 국문시가 장르의 실현 양상」, 『동양고전연구』 제54집, 동양고전학회, 2014, 183~212쪽.

(UCI: G704-001739.2014..54.013)

이형대, 「楚漢古事 소재 시조의 창작 동인과 시적인식」, 『한국시가연구』 제3집, 한국시가학회, 1998, 377~395쪽.

임종욱, 「한문교육에서의 용사전고의 활용 방안 시론 고사성어(故事成語)의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25,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2, 253~274쪽.

(UCI: G704-001857.2002..25.008)

조지형, 「典故의 解讀 문제와 고전문학교육의 방향」, 『국어문학』 제60집, 국어문화회, 2015, 169~195쪽.

(UCI: G704-001819.2015.60.60.008)

조홍욱, 「시조의 소설 <삼국지연의> 수용 양상 연구」, 『한국학논총』 제37권,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2, 651~673쪽.

(UCI: G704-SER000013600.2012.37..017)

——, 「시조의 초한고사(楚漢故事) 수용 양상」, 『한국시가연구』 제40집, 한국시가학회, 2016, 180~203쪽.

(UCI: G704-000454.2016.40..004)

하운섭, 「‘항우’에 대한 기억의 변화와 조선 후기의 문학적 재현」, 『고전과 해석』 제22집,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17, 155~189쪽.

(UCI: G704-SER000010566.2017.22..008)

| Abstract |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of Authentic Precedents in Sijos

Zhang, Dan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methods for the most rational classification of authentic precedents in Sijos. Since there are huge amounts of Sijos containing an authentic precedent, it will not be a desirable method to cover all of these works from the beginning. The study thus decided to choose Kim Cheon-taek's *Cheongguyeongeon* as its text and find a model plan for the classification of authentic precedents in Sijos.

Theoretical plans for newly proposed classification were arranged as follows: the first round involved the major classification of authentic precedents into old phrases and previous examples. In the second round, old phrases and previous examples were further divided. Old phrases included medium categories of those from the mythical age and those from the historical age, whereas previous examples included medium categories of scriptures, history books, verse and prose, and novels. The final round saw the classification of old phrases from the mythical and historical age into small categories of figures and spaces.

The newly proposed method of classification was applied to *Cheongguyeongeon*, and the results show that there were overwhelmingly more old phrases than previous examples, more old phrases from the historical age than those from the mythical age, and more old phrases referring to figures than those referring to spaces. It is expected that more specific analysis will result in a significant pattern. There are a couple of issues that should be thought over and judged in the actual application process, but they can be solved. In this aspect, this classification system seems to have enough utility and will be capable of classifying authentic precedents in all Sijos.

Key words : authentic precedents, classification, 『*Cheongguyeongeon*』, Kim Cheon-taek, old phrases, previous examples, sijos.

투고일 : 2019년 1월 15일 심사기간 : 1월 25일 – 2월 14일 게재확정일 : 2월 15일
--

